“소나무를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

1. 기획 목적

○ 속리산을 대표하는 나무인 소나무에 대해 알아 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 중 하나인 정이품송과 관련된 속리산 유래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속리산만의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원관리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 상 자 : 어린이
○ 계　　절 : 가을
○ 운영코스 : 정이품송 앞~ 은구석공원
○ 소요시간 : 1시간
○ 참가인원 : 20명 내외
○ 준비물
  - 해설자 : 해설 소품(곤충눈 체험경), 구급약
○ 운영주체 : 직원, 자연환경안내원

3. 시나리오 구성요소

○ 구연동화식의 접근성
○ 알기 쉽고 퀴즈식의 호기심 유발
○ 시나리오를 통한 체험의 극대화
○ 기념사진을 통한 국립공원과의 유대감과 추억만들어주기

시나리오

1. 만남과 인사하기(속리산국립공원안내도 앞)

안녕하세요? 가을 산들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솔향기 가득한 '속리산국립공원'을 찾아오신 어린이 여러분~ 진심으로 무척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와~~박수~~~

저는 "소나무를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영어로는 에코가이드라는 명칭을 사용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코가이드~"

네, 영어를 너무나도 잘 하는군요~(웃음)

이 더운 여름날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따가 나무 그늘진 곳에서 우리 즐겁게 무언가를 만들거 랍니다.
무척 기대되지요?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서있는 이곳 큰 소나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체험들을 통해
속리산 국립공원에서의 또 다른 공부와 재미있는 체험놀이들을 통해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 길 바랍니다.
흔히 소나무를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우리나무'라고들 말하지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네,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알고계시군요~
맞아요, 어느 해에 산림청에서 산림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소나무를 제일 좋아하고 2위가 은행나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 숲의 약 42%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랍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서도 소나무가 나 올 정도니 참 소중한 나무지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솔가지를 끼워 대문에 금줄을 달았고, 소나무로 집을 지어 살면서, 생활용품과 땔감으로 썼으며, 솔잎으론 송편을 찌고, 먹거리나 약으로 쓰며 살다가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에 넣었으며 솔숲 근처에 묻혔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솔과 함께 태어나 솔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솔과 함께 일생을 마감했다 하리만큼 소나무와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우리 민족의 나무라 부릅니다.
자~~그럼 우리 민족의 나무인 소나무를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2. 정이품송의 유래를 알아보아요.

어린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속리산을 대표하는 나무는 우리 소나무인 '정이품송'이랍니다. '정이품송'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된 어느 날 밤,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며 침을 뱉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침을 뱉은 자리가 곪기 시작하고 온몸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백약을 써 보았지만 소용없자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쳐보고자 명산대찰을 찾아 이 곳 속리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데, 그때 연(가마)이 걸리지 않도록 소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 주어서 무사히 이곳을 통과했고 법주사와 복천암 등에서 사흘밤낮을 국운번창을 기원하는 법회와 불공을 드린 결과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또한 돌아가는 길엔 이 소나무 아래에서 큰비를 피했다고 하며 기특한 나무라 하여 '정이품'이란 벼슬을 내려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연유로 '연걸이소나무(연송)이라고도 불렸답니다. 정말로 정이품송은 대단한 소나무죠?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 소나무로 옛날엔 어떤 쓰임새로 우리들 곁에서 사용되었을까요?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맞아요~

옛날엔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소나무 아래에서 태교를 하고 맛있는 장 담글 때 금줄에 숯, 고추, 백지, 솔가지 등을 끼워 넣었고 집을 지을 때 기둥이나 서까래용으로 썼답니다.
나무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벌레가 생기거나 갈라지지 않아 경복궁과 같은 궁궐이나 큰 절을 지을 때 썼던 소나무, 그러나 요즘은 궁궐이나 큰 절을 보수할 때 크고 질 좋은 소나무를 구할 수 없어 무척 안타깝답니다.
소나무로도 참 많은 일들을 했지요,

우리나라 숲의 대표적인 소나무로는 적송과 리기다소나무 그리고 잣나무 등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잎이 2개씩, 리기다소나무는 3개씩, 잣나무는 5개씩 모여 나오는 것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답니다. 적송의 경우 수피가 붉은 색을 띠고, 리기다소나무는 수피에 맹아가 많은 것이 특징이래요.
흔히 우리가 보는 소나무는 줄기가 곧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다 구부러진 것은 아닙니다. 경북 봉화, 울진, 삼척등지에서 자란 소나무는 쭉쭉 곧게 뻗으며 굵게 자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질이 좋은 소나무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이 우수한 소나무들은 벌채해 일본으로 모조리 가져갔기 때문에 대부분 구부러진 소나무만이 우리 숲에 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3. 곤충 눈으로 보는 도구의 체험

속리산국립공원의 대표 소나무인 정이품송의 사진들과
주변에 보이는 친구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저 쪽 은구석공원으로 이동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뒤를 돌아 한번 계곡을 보세요. 혹시 두루미나 원앙새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곳은 은구석공원이라는 테마공간이랍니다.
저기 공원 옆에 보면 계곡이 보이지요?
저 계곡에도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선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원앙새를 비롯해, 백로, 왜가리 등등 매일 찾아와 먹이를 찾고 먹거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휴식을 즐기기도 한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조금 넘게까지 주로 원앙새와 왜가리가 많이 찾아옵니다.
원앙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원앙새를 보면, 화려한 색상과 수려한 외모를 가진 친구가 수컷이고, 그냥 일반 새처럼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상의
친구가 암컷이랍니다. 즉, 암컷은 유전자가 매우 우수한 수컷을 결혼상대자로 찾기 때문에, 보다 화려하고 튼튼한 수컷을 선호합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조용조용 한번 뒤를 돌아
계곡을 관찰해볼까요?

와~없군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순간에 슬쩍 날아와 우리 어린이들과 자연속에서 친구할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하늘을 나는 곤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체험을 해볼까요?
자,여기 잠자리가 꽃과 자연, 사람들을 보는 느낌과 똑같이 만든 과학도구가 있답니다.
이 작은 도구로 우리모두 곤충이나, 잠자리가 되어 꽃들을 바라보고, 친구들,선생님의 얼굴도
한번 볼까요?

잠자리 눈으로 보는 도구체험

체험 도구로 아이들과 함께 가을의 자연 속에서 체험을 해봅니다.

때죽나무

작지만 모양은 분명 바나나처럼 보이는 데 이건 도대체 뭘까요?
언뜻 보면 꽃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것은 때죽나무의 벌레혹 입니다. 벌레혹은 충영이라고도 하는 데 나무가 곤충에 대응하여 벌레 혹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벌레 혹의 주인은 '때죽나무납작진딧물'입니다. 6월에 벌레 혹이 형성될 때는 1마리였다가 그 후 5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고 7월 말쯤 벌레 혹 끝의 구멍을 탈출했다가 가을에 다시 때죽나무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염환경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주변에서도 잘자랍니다.
열매는 기름(45%)로 이용가치가 높으며, 염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옥잠화

여러분들 고전 동화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요?
옥잠화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옛적 중국에 피리 부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몰아지경의 상태로 피리 한 곡조를 읊고 있는데, 홀연히 하늘에서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옥황상제의 따님이 방금 곡을 다시 듣고 싶어하시니 한 번 더 불러달라고 말했지요. 피리의 명수는 선녀의 부탁대로 하늘의 공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고맙다고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꽂고 있던 옥비녀를 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옥비녀는 피리의 명수의 손을 스치며 땅에 떨어져서 그만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회해도 소용 없는 일이었지요. 후에 그 자리에서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봉오리의 모습이 선녀가 던져주었던 옥비녀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꽃을 옥잠화, 즉 '옥비녀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만일에 피리의 명수 손에 딱 그 옥비녀가 손에 쥐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옥잠화는 아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렇게 옥잠화는
중국 원산의 재배하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키는 사람 무릎 정도의 높이랍니다. 잎은 모두 근생엽으로 광택이 나는 타원형입니다. 끝은 뾰족하고 밑은 심장형이며, 여덟 쌍 정도의 맥이 나 있습니다. 꽃은 꽃줄기 끝에 여러 송이가 모여서 달리고, 연한 자주색이거나 흰색입니다. 한여름부터 여름 끝날 즈음까지 꽃이 피는데, 저녁에 피어났다가 아침에 시들고, 향기가 좋습니다.

● 옥잠화가 중국에서 들어온 정원에 심는 관상용 식물이라면, 우리 나라의 산 속에는 비비추라는 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비비추(H.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일월비비추(H. capitata Nakai), 좀비비추(H. minor (Bak.) Nakai), 주걱비비추(H. japonica var. lancifolia Nakai), 참비비추(H. clausa var. normalis F. Maekawa) 등의 '비비추'들이 있지요. 옥잠화처럼 생겼는데 꽃의 색깔이 보라색 계열인 식물을 산에서 보게 되시면, 일단은 '비비추의 한 종류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네,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쉽게 마무리해야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소나무와 여러 야생화를 체험하면서 무척 즐거운 시간들이였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밝게 웃으며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보낸 시간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우리 그 기념으로 추억들을 간직한 채 또 만나요~~~